"'승가화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 가속"

〈불교학연구〉, 이자랑 · 조기룡 교수 특별논문 게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94년 일어난 조계종의 종단 개혁은 한국 현대불교사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조계종은 현재의 종헌 · 종법과 종단 운영 체계를 확립했다. 그렇기에 94년 종단 개혁은 일종의 '절대선'이었고, 쉬이 비판하기란 어려웠다. 하지만, 94년 종단 개혁의 한계와 과제를 비판적으로 분석 · 고찰한 불교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불교학연구〉 제68호는 '한국불교 종단개혁의 상처와 치유를 고민한다'를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에는 '개혁종단의 정계에 대한 율장적 검토(이자랑)'와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조기룡)'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논문에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의 주도하에 이뤄진 4.10 전국승려대회와 개혁종단이 진행한 궐석심판, 체탈도첩 등을 율장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련의 과정들이 불교의 율장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전국승려대회의 경우, 이 교수는 갈마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승려대회가 초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유가 '모든 승려가 한 곳에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분쟁 중인 양측 중 한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전비니'라는 멸쟁법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전비니'를 성립시키는 조건은 승가 · 법 · 율 · 사람이다. "원고, 피고를 포함한 승가 구성원이 전원 출석한 자리에서 법과 율에 근거해 멸쟁이 이뤄질 때 그 갈마의 결과는 유효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갈마는 승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법의 기준을 확인하며 승가 구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과 율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여부의 확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승려의 만장일치가 가능하며 화합도 가능하다"면서 "이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승려대회는 불교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 방법인 갈마에서 연원을 찾아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궐석심판도 '현전비니'의 요건 중 하나인 '사람'이 부재했음을 지적하며 "궐석심판이 승가화합과 관련해 이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징계 과정을 살핀 이 교수는 개혁종단이 '승가화합'의 가치를 크게 염두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94년 종단의 3대 개혁 과제에는 '인적 청산'이라는 말과 5대 지표와 실천을 위한 세부사업의 과제 안에는 해종행위자 정화가 들어 있는 등 승가 화합을 적극적으로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궐석심판 용인과 멸빈 대상에 대한 조항 등은 지금도 조계종 법령집에 반영되고 있다.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를 종단 운영 전반에 걸쳐서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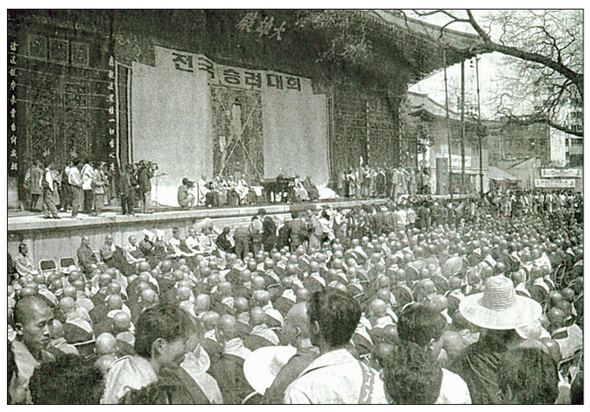
조 교수가 꼽은 개혁종단의 한계는 △종책모임 대두와 종단정치 과잉 △개혁의 세속성 △승가 갈등과 분열 △행정 중심의 종단 운영 등이다.

그는 "개혁종단의 목적은 '불교의 자주화'와 '종단의 민주화'로 집약된다. 개혁종단의 개혁은 과연 조계종의 궁극점인 종지를 향해 이뤄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정부의 행정 체계를 모방해 관리 감독의 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혁종단의 과제로는 △종교적 정체성 회복 △화합공동체의 실현 △비구니와 재가자의 참종권 확대 △종단조직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개혁종단 출범 이래 민주화와 자주화라는 세속적 가치의 실현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수행과 전법을 향한 종단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제 조계종은 정치와 행정이 아니라 수행과 전법을 최우선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종헌 · 종법을 제 · 개정하고 종단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조계종은 사회화와 세속화를 혼동하지 말고, 탈세속화를 통한 불교적 종교성 회복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개혁종단이 조계종을 진정한 종교 · 불교조직으로 만드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4월 10일 조계사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사진 왼쪽)와 개혁회의 현판식 모습. 94년 종단 개혁을 상징하는 사진들이다. 현재 조계종의 행정체계를 확립한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다룬 논문들이 발표됐다.

승려 대회 · 궐석 심판 등
율장적으로 검토 · 분석해
화합 중시 율장과는 달리
한쪽 기준으로 징계 진행

종단 행정체계 정립 성과
세속화 · 불평등 부작용도
"수행 · 전법, 중점에 둬야"

학교수업 · 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봇물'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렸다. 장기간 이뤄지는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 우울감과 분노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의 방안 논의가 잇달아 이뤄지고 있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는 10월 22일 동국대사범대학부속영석고(교장 오종환, 이하 영석고)에서 제50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우수형 영석고 교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립학교 전법교화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학교 전법교화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며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줄고, 학교 공동체 활동이 줄었음을 지적한 우 교법사는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을 청정케 하고, 이를 통해 불교적 인성을 함양하는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 · 구 · 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업 디자인 사례로 꽃밭 가꾸기를 통한 산책명상(신), 만다라 그리기(구), 바디스캔 명상(의)을 제안했다.

또한 마을 연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의정부청소년수련관의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교내 동아리 협조 △불교동아리 공모 지원사업 등이 제시됐다.

우 교법사는 "꽃밭 가꾸기, 만다라 그리기, 바디스캔 등은 모두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각 학교의 상황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 수업을 안내하는 교법사의 개성에 맞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한 대중들의 우울감 등을 불교심리치유로 해소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10월 22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미술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심리 · 사회적문화재와 불교심리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심리치료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 교수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유식학적 성찰과 심리치유-코로나 블루와 관련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의 감정을 유식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기제를 서구 심리학과 비교해 고찰했다.

오지연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천태지관사상의 활용'에서 중국 천태종의 사명지례가 쓴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서 불자들의 수행법을 제안했다. 또한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는 '코로나19 상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교상담을 중심으로'를, 윤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우울을 다루기 위한 수용전념치료와 불교 상담 비교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불교적 프리즘으로 조명하고 인문학적 해법을 찾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11월 13일 오후 1시 '불교와 역병: 2500년의 아시아를 가로지르다'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ZOOM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 · 동북아 · 한국불교가 역병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는지를 조명한다.

1부에서는 '불교에서 보이는 질병의 악귀들의 조복, 그리고 역할의 변화(심재관, 상지대)'와 '율장에 보이는 질병과 재난의 코퍼스(이자랑, 동국대)'가 발표되며, 2부에서는 '몽골 전통유목사회의 역병 관리와 신앙(김경나, 단국대)'와 '동아시아 불교, 영험과 치병의 사례 ·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역병 인식과 불교의 대응(박광연,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대중에게 소개된다.

불교교육연합회서 학교 전법교화 프로그램 사례 발표
불교문예연구소, 불교심리치유 통한 우울 극복 논의해

신성민 기자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 정문 스님 선출

22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불교방송 제7대 이사장으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금호 정문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10월 22일 다보원 법당에서 제113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정문 스님을 선출했다.

종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뤄진 이날 이사장 선출에는 정문 스님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후보로 나왔으나 수불 스님이 후보를 사임하며 정문 스님이 단독후보로 추천됐다.

선출 직후 정문 스님은 "불교방송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하지만 불교방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사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관 미비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방송 제7대 이사장 정문 스님은 성타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 등 주요 소임을 맡으며 종무 행정력을 인정받았으며, 경주 연지암 · 포항 임허사 · 보경사 · 강화 보문사 등 주요 사찰 주지를 역임하며 전법 포교활동에도 진력했다.

제12 · 13 · 15대를 거쳐 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5대 종회의원 재직 시에는 전반기 차석부의장을 맡아 안정적으로 중앙종회를 이끌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장, 불국사 부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적 이사 22명 가운데 현문 스님과 원종 스님, 종호 스님, 성행 스님, 화평 스님, 현민 스님, 월장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이한구 이사, 이선재 BBS 사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12대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부단장 당선

10월 16일 단장 · 지역단장 선거 실시

조계종 포교사단은 10월 16일 12대 포교사단장 및 지역단장 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수석부단장<사진>을 선출했다.



김영석 신임 포교사단장은 충북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건설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2006년 11기 포교사, 2016년 10기 전문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충북지역단장, 포교사단 수석 부단장으로 활동했으며, 11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포교지도'와 '정관개정'을 완성해 포교활동의 제반 현황을 수치적 통계 데이터로 집대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영석 신임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 단장선거 최초로 대의원들의 직접투표로 실시된 선거의 당선자라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역단장 및 포교사단 수석부단장 소임중에 느낀 중요 과제인 '소통, 공유, 재교육'의 개선점을 찾아 '포교의 지평을 더 넓고, 크게 확장' 시켜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며 2년간이다.

포교사단은 이날 지역단장 선출도 마무리했다. 서울지역단장에 서정각 포교사, 부산지역단장에 송재린 포교사, 대구지역단장에 이현숙 포교사, 대전충남지역단장에 유희열 포교사가 각각 선출됐다. 또 인천경기지역단장에 권태근 포교사, 울산지역단장에 정연숙 포교사, 경북 지역단장에 이미숙 포교사가 당선됐다.

그 외 지역단은 현 단장이 연임됐다. 광주전남지역단 강윤구 단장을 비롯해, 전북지역단 김용수 단장, 강원지역단 김효현 단장, 충북지역단 김명동 단장, 경남지역단 박해덕 단장, 제주지역단 이명직 단장, LA지역단 이영미 단장이 연임해 활동을 이어간다.

노덕현 기자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불교평론 학술상과 통합 운영
정각사서 매년 500만 원 지원

현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뇌허 김동화 박사(1902~1980, 사진)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뇌허불교학술상'이 다시 운영된다.

불교계 대표 계간 학술지 〈불교평론〉은 "올해부터 2001년 이후 중단된 '뇌허불교학술상'을 '불교평론학술상'과 통합해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을 시상키로 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뇌허불교학술상'은 뇌허불교학술원이 제정한 상으로, 해당 기관은 한국 비구니계 원로이자 조계종 명사였던 故태허 당 광우 스님이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덕을 기리고 불교학 진흥을 위해 설립했다.

불교계 최초 학술상이던 '뇌허불교학술상'은 매년 뛰어난 연구업적을 쌓은 학자를 선정해 뇌허의 이름으로 시상해 왔다. 이는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1983년 1회 수상자인 김영태 박사를 필두로 원의범 · 이영무 · 서법경 · 강건기 · 서윤길 · 정성본 · 윤호진 · 박선영 · 장충식 · 정병삼 · 김상현 · 전재성 등이 이 상을 수상했다. 특히, 뇌허불교학술상은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상의 권위와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후원자인 광우 스님의 병환과 원적 등으로 뇌허불교학술상은 20년 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뇌허 김동화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뇌허불교학술상의 부활을 논의한 끝에 지금까지 이 상의 운영자인 정각사(주지 정목)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부터 불교평론 학술상과 통합해 수상자를 선정 · 시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각사는 매년 500만 원의 상금을 후원한다.

〈불교평론〉은 "'뇌허불교학술상'이 한국불교학의 태두였던 뇌허 김동화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만큼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불교학자에게 최고의 영예가 되는 권위있는 학술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화쟁인문학' 연구 방법론 논찬 본격화

영산대 화쟁연구소, 11월 6일 비대면 학술대회

동양과 서양의 인문학 속 화쟁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영산대 화쟁연구소(소장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는 11월 6일 오후 1시 '화쟁인문학의 전망과 연구방법론(1)'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에 설립된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화쟁학'과 '화쟁인문학'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설립 후 첫 행보여서 더욱 주목된다.

박태원 화쟁연구소장은 '화쟁학의 의미와 전망-붓다 · 불교 · 원효와 화쟁인문학'을 기조발표하며, △프랑스 차이 담론의 화쟁학적 탐구 가능성- 차이 개념 자체에 대한 탐구와 차이의 배타적 차별 극복을 위한 방법론 연구(안은희, 서울과학기술대) △초기불교의 화쟁학적 탐구- 차이담론을 위한 시론(우동필, 전남대) △만해 한용운의 횡단적 사유와 시집 〈님의 침묵〉의 화쟁론적 읽기(이선이, 경희대) △인성교육을 통한 대승불교의 화쟁학적 탐구- SEE Learning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김현구, 전남대) 등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박 소장은 "화쟁연구소는 한반도 전통 지성의 성찰을 등 바람 삼으면서 동서양 인문 지성의 관련 성찰들을 융섭시켜 보편적 수준의 타당성과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화쟁인문학을 수립하고자 한다. 화쟁인문학을 화쟁학으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